



정면 #1.

땡땡! (아이들 목소리 효과음)
아들 (문을 열고 들어온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늘 받아쓰기 백점 맞았어요!”
엄마 (어깨 두드려주며) “어우 우리 아들 장하다.”
아들 “엄마, (백점 맞았으니) 게임기 사주세요.”
연출 NG!

“연극 수업이니 머리가 말랑말랑해져요”

‘올해의 으뜸교사’ 박상철 교사의 연극 수업 현장



신화초등학교 박상철 교사

보슬보슬 내리는 빗방울이 한주의 시작을 알리던 지난 11일 아침.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신화초등학교 2학년 1반 교실에선 아이들의 역할극이 한창이었다.

받아쓰기에서 백점을 받은 아들, 엄마가 칭찬해주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설정되면 대사와 연기는 아이들 손에 맡겨진다. 아들 역을 맡은 권남 학생(7세)은 연신 ‘게임기 사주세요’만을 연발하다 세 번째 NG가 나자 그만 교체되고 말았다.

초등학교 2학년 ‘말하기’ 수업 시간에 벌어진 일이다.

이날 수업의 주제는 칭찬하는 말을 들었을 때 대답하기. ‘말하기’ 교과서를 보니 이럴 땐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는 식의 모범답안 몇 개가 적혀있다.

남이는 비록 주인공에선 교체됐지만 칭찬을 들었을 때 당연하다는 듯 ‘게임기 사주세요’를 외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주제가 바뀌면 이런 식의 상황이 또 하나 만들어진다. 아이들은 수시로 자신의 역할과 대사를 찾아나야 한다.

“공부하자며 책 펴라고 하면, 공부하기도 전에 머리가 굳어버리잖아요. 책 지으신 분들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긴 했지만 아이들이 처한 환경을 다 이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한 환경을 만들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이 역할극의 연출을 맡은 교사 박상철(52) 씨. 교과서를 보면 ‘이것을 어떻게 연극적으로 구성해볼까’를 먼저 고민한다는 그는 ‘교육연극’ 분야를 개척해온 30년 경력의

“원래 해오던 틀이 아니니까 처음 접하면 일단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지요. 그 다음 반응은 ‘재미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가고 싶다’로 이어지더라고요.”

아이들 생각도 그럴까?
“저는 마니아예요. (연극) 하자고 하면 무조건 손들어요.”

배태랑 교사다.

교사라는 직함 뒤에 연출가 박상철도 따라붙는다.

매년 연말 때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모자가정을 돕기 위해 서너개 학교들이 연합해 연극·합창·뮤지컬 등의 자선공연을 펼치는데, 공연의 총 연출자가 박 씨이기도 하다.

이런 그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2009 올해의 으뜸교사’에 선정됐다.

교육연극? 이상하다 ▶ 재미있다

“옛날에는 주입식 교육을 했잖아요. 저도 그런 세대인데, 교육대학 마치고 현장에 나와 보니 아이들이 수업에 실증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마침 사회적으로 연극 붐이 일면서 자연스럽게 연극을 접하게 됐지요. 그땐 TV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겉보기엔 나이를 짐작할 수 없던 그가 “TV가 없던 시절”을 거론하자 비로소 나이 선을 넘긴 교육자로 다가온다.

일곱 살 꼬마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하루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내면서 어느덧 30년을 지내오다 보니 물리적 나이는 잊은 지 이미 오래라고 했다.

교육대학 졸업 후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에 진학해 연극 이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연출 경험도 쌓은 그는 ‘교육’과 ‘연극’을 결합해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정형화된 교육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그의 교육방식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까?
“원래 해오던 틀이 아니니까 처음



신화초등학교 2학년 1반 아이들과 박상철 교사가 역할극 수업을 하고 있다.

접하면 일단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지요. 그 다음 반응은 ‘재미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가고 싶다’로 이어지더라고요.”

아이들 생각도 그럴까?
“저는 마니아예요. (연극) 하자고 하면 무조건 손들어요.”

말하기 수업을 마친 남이가 어디서 들었는지 ‘마니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열띤 반응을 보인다. 다른 아이들도 한결같이 ‘재미있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1, 2교시를 통틀어 총 80분 동안 진행된 ‘말하기’ 수업 시간 내내 즐거나 입을 열지 않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실 새 없이 쏟아지는 선생님의 질문에 거침없이 손을 드는 아이들도 매번 절반을 넘었다. 아이들은 자신이 지목될 때까지 손을 들고 또 들며 ‘티처(teacher)’를 외쳐댔다.

발표와 참여를 주저하지 않는 아이들.

‘연극은 놀이’...교육적 효과 충분

박 씨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누구냐고 묻자 그가 바로 앞 노란색 점퍼를 입은 한 아이를 가리킨다.

“공부로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이 연극 수업을 해보면 굉장히 살아나요. 연기 테크닉이 뛰어난데 그걸 칭찬을 많이 해줘요. 평소에는 관심도 안 보이다가 연극수업만 시작되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자기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연극을 통해 창의적인 능력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런 창의성이 공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시선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연극은 그 자체가 놀이예요. 놀이를 통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보는 거죠. 학교에 놀러 온다고 생각해보요. 그게 아이들이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해지면서 아이들 머리가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창의성이 길러진다”라는 말 대신 ‘머리가 말랑말랑해진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는 그는 아이들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창의성이 발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가 주장하는 ‘교육연극’이 아이들을 바로 그 ‘이상한 순간’으로 안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

그래도 학년이 바뀌면 아이들이 다시 정형화된 틀로 돌아가게 될까 염려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그

래서 학년이 바뀔 때마다 다시 저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다”고 답했다.

그는 “연극의 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다”면서 “다른 교사들도 ‘교육연극’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입식 교육의 세례를 받고 자란 그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건?
“행복하게 놀고,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아이들 창의성 길러준다고 자유롭게 해주면 좀 풀리지 않아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가면서 사고의 폭은 넓게...”

인터뷰 도중 아이들이 가져온 미술작품들(종이를 격자로 연결해 만든 모자이크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가 잠시 양해를 구한 뒤 교실 앞쪽으로 걸어 나갔다.

“자, 여기를 봐요. 이렇게 직선에서 비뚤어진 선으로 바꾸기만 해도 그게 창의적인 작품이 되는 거야. 아주 쉽지?”

“이런 작업을 계속하면 머리가 굉장히 어떤 사람이 돼?”
아이들 스물여섯 명이 동시에 대답한다.
“말랑말랑한 사람!”

